

회원사 동정

利川電氣工業



몰드변압기 KERI 개발시험 합격

利川電氣工業(株)(代表理事:成基梁)는 지난 8월 25일 몰드변압기(3상 300kVA급, 3.3kV 이상 66kV 이하)에 대해 한국전기연구소의 개발시험에 합격함으로써, 9월 13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 인증시험 면제증”을 취득하였다.

본제품은 급부하변동에 강하고, 특수한 수지배합으로 반영구적인 수명유지와 절연성이 탁월하여 전력손실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천전기는 몰드변압기의 생산량을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번 몰드변압기의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취득으로 이천전기는 변압기개발시험대상 전품목(4개)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으며, 이천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변압기의 공인인증시험 면제품은 154kV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 3.3kV 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 3.3kV 이상 66kV 이하의 몰드변압기 등 전제품에 해당하게 되었다.

大元電線



생산구조 이원화

중견전선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한 大元電線(株)(代表:李浩植)가 최근 경기도 松炭에 저압전선만을 양산하는 전용공장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생산전문화 시대를 열었다.

전선 생산구조를 이원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4월부터 준공과 함께 가동에 나선 대원전선 계열사 성원전선은 기기선, 제어용전선, 자동차배선용 등 8㎡ 이하 굵기의 제품만을 양

산할 계획이어서 특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송탄공장은 부지 3천평, 건평 1천5백평 규모로 설비부문 50억원을 포함 모두 80여억원 상당이 투자될 2백톤 규모의 저압전선을 생산케 된다.

大元전선이 이같이 전문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창업 이래 꾸준히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온 결과로 풀이되며 전선의 규격별 전문생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첨단설비 도입으로 고급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송탄공장의 증설로 대원전선 모기업에 포함 전선생산규모가 연간 1만3천톤에서 1만7천톤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매년 2백억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전선의 이러한 일련의 족적들은 창립 이후 30여년 동안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이 일찍이 자리잡아 왔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설연구소를 통한 제품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비롯 무한 경쟁속의 세계화에 부응키 위해 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의 ISO 9002 인증획득 등의 배경 또한 이 회사의 경영혁신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건설된 성원전선도 大元電線이 추진하고 있는 T & T 2000(Top And Together)운동 전개와 함께 향후 2천년도 목표 매출액 2천억원의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現代重工業



일에 송전철탑 수출

現代重工業(株)가 최근 日本東京電力으로부터 송전철탑을 수주, 일본 철탑시장진출에 본격 나섰다.

現代重工業이 이번에 수주한 154kV급 격자형 송전철탑 5기는 나스텐키, 도모에 상사 등 일본정상의 철탑생산업체 4개사와 치열한 경쟁끝에 수주한 것으로 국내 철탑업체가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2월 東京電力으로부터 66kV 급 철탑 10기를 수주해 납품한 적이 있으나 이 철탑은 東京電力이 철탑 생산업체인 니폰덴노사로 하여금 現代重工業의 시공능력을 사전 평가토록 한 간접발주였다.

東京電力은 엄격한 제작사양으로 유명한 일본 최고의 전력회사로 現代重工業이 일본업체를 제치고 이번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일본에서 국산기술이 인정받는 전기를 마련했다.

現代重工業은 일본 철탑시장 본격 진출을 계기로 향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치중했던 철탑수출의 활로를 일본, 중국 등으로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現代重工業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연간 2만t 생산규모의 송전철탑공장(대지 1만평)을 건설한다. 이 철탑공장은 현대그룹이 추진중인 對베트남 합작투자예정사업(10개)중 첫 사업으로 베트남정부와 자본금 3백만달러 규모의 철탑공장건설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베트남 정부의 지분비율은 65대 35로 공장건설에는 모두 8백10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9월하순 베트남정부 투자협력위원회(SCCI)에 철탑공장 투자승인신청서를 제출, 10월중 허가가 나는 즉시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부터 본격 생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송전철탑중 30%는 베트남 국내에 판매하고 70%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중동지역에 수출할 방침이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동화설비 및 도금설비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철탑절단장비는 일본에서 구입할 계획이다.

大韓電線



삼양금속 알루미늄사업 양수

大韓電線(株)(代表: 兪彩禧)는 계열사인 삼양금속의 알루미늄사업을 오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정식으로 양수해 지난해 스테인리스사업에 이어 비전선분야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정하

고 자산감정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알루미늄사업의 전격적인 양수는 경영다각화와 함께 향후 전기동,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등 첨단 신소재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현 삼양금속의 알루미늄 관련 영주공장과 모든 생산설비, 관련 모든 생산설비, 관련 임직원은 앞으로 대한 전선에 양수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도 절차에 따라 곧 소집될 예정이다.

또한 감정기관의 자산감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양수도가액은 대략 3천8백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수되는 구체적 내용은 영주시 소재 공장(토지 7만평, 건평 2만평)과 6백여 관련 임직원, 알루미늄압연 관련 설비 일체이며, 삼양금속 영주공장은 연간 용해주조 14만톤, 열간압연 30만톤, 냉간압연 12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전선은 알루미늄사업 양수 후 냉간압연 설비를 연간 30만톤 규모로 늘리고 고부가가치인 컨테이너, 알루미늄 캔소재, 항공·우주 등 첨단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어 2천년에는 알루미늄관련 제품의 매출을 7천억원선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95년 상반기 현재 대한전선은 5천6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금년 말에는 매출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사업의 양수로 오는 2천년에는 매출 2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G電線



초소형 커넥터 開發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최근 PCB기판은 물론 플랫 케이블과도 결합이 가능한 초소형 커넥터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출시에 나섰다.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FPC/FPC용 커넥터는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가전기기의 연결이 복잡하고 난해한 회로 연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전선용 커넥터의 복잡성과 기판대기판용 커넥터의 배선상

불편함을 해결했다.

LG전선은 이 커넥터가 1.25mm 피치 편면 Type 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이면서도 안정된 접촉성을 가지고 있고 접촉구조가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FPC/FFC 전선을 반대로 삽입할 경우 발생하는 기기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은 또 그동안 커넥터 크기의 제약으로 가 전제품 세트 회로를 설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FPC/FFC 커넥터의 개발로 국산 가전 제품을 소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FPC/FFC 커넥터 개발에 성공한 LG전선은 이달 말부터 양산 을 시작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공급에 나설 계획이며 이 커넥터의 개발로 연간 5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G産電



금성계전 · 금성기전 합병

LG産電(株)(代表: 李鍾秀)이 금성계전 · 금성기 전을 지난 9월 1일 합병하고 그룹내 산업용 전기 · 전자 단독법인으로 출범하였다.

LG산전은 양사를 합병함으로써 자본금 1018억 원에 '95년도 1조5천억원의 외형을 달성하게 되며 창원 · 청주 · 천안 · 주안 · 오산의 5개 공장과 북경 · 태국 등 12개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를 갖추게 되 는데 이로써 LG산전은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 · 전자 업체의 면모에서 일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LG산전은 합병을 계기로 “쾌적하고 생산적인 산 업사회를 창조하고 산업용 전기 · 전자 분야의 세계 초우량 기업”을 21C 장래상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 현을 위해 첫째, 제품 및 핵심기술의 자체개발력을 강화한 기술경쟁력 확보 둘째, FA사업의 집중육성 셋째, 해외 현지거점의 확대와 지역전문가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의 확대 넷째, 전략적 사업단위에 의 한 조직혁신으로 사업별전문화 등 크게 4가지 경영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번 3사의 합병은 사업구조를 전문화하고 내부 자원을 고도화하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의 경영시너지 창출을 통해 세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LG산전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 기 위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 사업구조를 고객 · 기술분야에 따라 전력기기, 빌딩설비, 제어기기, 자동 화시스템, 서비스 산업기기 등 5개 사업 Group군 과 그 아래 사업특성에 따라 16개의 사업 Unit를 두는 것으로 개편했다.

조직운영 면에서는 종전의 사업부장에 해당되는 사업 Unit장에게 사업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 여 사업의 책임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실 ·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했으며 발탁인사의 문호도 훨씬 넓혀 놓았다.

LG산전은 합병후 단기적으로 증점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4가지를 선정했는데,

첫째, 개별사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이는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운동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각 사업 Group별 연구소 운영을 통한 핵심 기술력 확보로 Global제품을 개발하는 등 개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둘째, 고객만족의 정착. 이는 불량률 100ppm 기반 구축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망 강화를 통한 A/S 대응속도를 제고하여 고객과의 Inter-face를 확충하는 등 고객 밀착 경영을 하겠다는 것 이다.

셋째,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여 적극육성. 이는 기존사업의 토대위에 신규유망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 하므로 사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생산 법인, 조립기 지 및 지사를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사업을 전 개하여 세계화 전략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종업원만족도 제고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인 데 이는 능력주의 인사체도를 초기에 정착시키며 부문간, 상하간 Communication을 활성화하며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는 등 초우량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향후, LG산전은 자동화분야에서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자동화(FA)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그동안 글로벌 제품으로 역점을 두어온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사업은 해외진출과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에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매출목표 5조원의 달성을 포함한 세계화 전략을 오는 2000년안에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LG그룹은 이번 합병에 따라 9월 1일자로 李喜鍾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李鍾秀 금성기전 대표이사 부사장을 LG산전 대표이사겸 산전CU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한편, LG産電(代表: 李鍾秀)은 '98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본사, 공장, 연구소, 해외법인, 협력업체 등 국내외 전사업장을 연결하는 '통합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 계획의 1단계로 LG산전은 지난 9월초에 이미 국내 50여 주요 사업장의 PC 3,300대를 LAN/WAN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서울 본사, 6개 공장, 영업부문, 물류센터, 지방 영업소 등 국내 전사업장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생산과 영업, 영업과 서비스 등 각 사업장의 경영정보를 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자 Mail과 전자게시판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98년 '통합 정보망'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과 함께 LG산전은 올 연말까지 5개 해외법인과 7개 해외지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외 해외에 있는 사업장 전부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東美電機工業



몰드변압기 개발 양산 돌입

변압기업계 선두주자인 東美電機工業(代表: 韓斗錫)가 몰드변압기를 자체개발하는데 성공, 전기공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동미전기는 최근 전기연구소(KERI)에서 실시한 몰드변압기(3상 300kVA, 22.9kV, 380/220)개발

시험에 당당히 합격,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국제전기위원회 변압기 품질규격인 IBC(726) 기준에 준하여 실시된 이번 개발시험에서 동미전기의 몰드변압기는 단락강도, 절연성능, 효율 등 각종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뛰어난 기술수준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동미전기는 지난해 6월부터 몰드변압기 개발에 착수, 1년 3개월동안 12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과 연구인원을 투입하는 등 기술개발에 총매진,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전국산화에 성공했다.

몰드변압기는 핵심부품인 권선 및 1·2차 도체를 각각 에폭시수지와 銅으로 만들어 절연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최근들어 환경오염문제해결, 안전성의 확보차원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압식변압기를 몰드변압기로 대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수요 또한 큰폭으로 늘고 있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이에 반해 기존변압기 기술외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 중소기업이 도전하기에는 버거운 품목이라는게 전기공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동미전기의 몰드변압기 국산화는 중소기업으로는 넘기 힘든 산을 뛰어넘는 쾌거로 평가된다.

동미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몰드변압기는 엠앤씨(M & C) 방식으로 제작되어 소형, 경량이면서도 절연성이 탁월하고 전력손실이 매우 적은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유압식변압기에 비해 안전성이 월등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없는 장점을 지녀 고신뢰성, 고안전성, 무공해성이 요구되는 곳에 적합한 제품이다.

동미전기는 이번 전기연구소 개발완료로 필두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2천kVA급 미만 제품을 매달 10여대 제작,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초부터는 생산대수를 매월 20여대 수준으로, 하반기에는 매월 40여대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제품용량도 5천kVA급 미만으로 점차 끌어올릴 방침이다.